

동성애와 사상

동성애 정치투쟁의 사상적 배경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정치 · 성혁명의 위험성



동성애 정치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순진하게도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의 측면에서만 동성애를 인식해 왔다. 유럽에서도 동성애를 정치투쟁의 전략전술로 활용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동성애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라고 밝히고 있다. 2011년 이스트런던 자금심행진(한국의 퀴어 축제와 같은 행진)의 조직자로 활동했던 사회주의자 콜린 윌슨(Colin Wilson)과 노라 칼린(Norah Carlin)은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역할을 바로 잡는 투쟁이다.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 성역할 등 가정을 구성하는 인간의 성을 정치와 권력의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가족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근대 서구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혁명적 사명을 갖게 된 것이다. “진리는 없다.”라는 탈근대의 사상사적 조류가 밀어닥치면서 이러한 성정치와 성혁명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럽과 북미를 강타하고, 유엔을 통해 구소련 붕괴 이후 가장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부상하게 되었다.

서유럽의 좌파들은 스탈린(1879-1953) 시대의 소련이 보여준 현실에 괴로워했다. 유토피아의 약속은 환상이었고 현실은 정치범수용소와 학살로 상징되는 독재자 개인숭배와 전체주의 독재정치였다. 서유럽의 좌파 루이 알튀세르의 소련에 대한 비판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 대한 성찰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이 2차 세계 대전의 상

처를 회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발생한 68혁명은 불세비키와 소련이 추구한 형태의 혁명이 아닌 새로운 세계 변혁의 길을 예비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유럽의 신세대 좌파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수용한 인간개조의 혁명이 전개된 것이다. 68혁명의 이념은 마오이즘과 음란한 히피문화, 여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과 구조주의·후기 구조주의 철학 등이 융합되어 형성되었다. 이 저항의 이데올로기는 서구의 주류 전통과 권위(기독교 윤리를 억압적 권력으로 인식)를 해체하여 유럽과 세계를 변화시켰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혁명의 구호는 존재하는 모든 권위에 저항하고 해체하라는 68의 혁명정신을 대변해 준다.

68혁명의 저항 이데올로기는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이후 서구사회를 지탱해 오던 정신과 권위, 그리고 질서를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기존의 모든 지적·도덕적 영향력(헤게모니)을 분쇄하고 무신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여’라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성별의 해체와 ‘젠더’개념을 통한 성의 재구성이 혁명의 전략전술로 활용되었다. 성정치-성혁명의 단계적 성취를 이룬 후, 이제는 이 ‘젠더’마저도 해체해버리는 인간해방의 혁명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의 성정치-성혁명은 모든 생활영역을 혁명전선으로 바꾼다. 부부의 침실까지도 혁명의 전선이 된다. 동성애의 확산과 동성혼의 합법화는 해방과 혁명의 신호탄이다. 결국 이들의 지향점은 자본주의의 폐절이다. 혁명사상의 배경이 되는 유물론을 중심으로 한 사상사적 흐름이 자연법과 자연권이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파생된 근대적 인권 패러다임을

해체시키고, 역설적으로 생명(낙태에 관한 논쟁에 주목해 보자)과 자연법을 경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인권이론으로 구성되기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음지에서 사회로 나온 LGBT들을 ‘젠더 이데올로기’의 증거로 포착해 이들을 정치혁명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LGBT 문제가 의료나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으로 포장되는 상황으로 전개 된다. 혁명세력은 법을 통해 LGBT 등의 병리적 문제 또는 정치-사회적 위험성을 설명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민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기에 이른다. 어렵게 지켜온 자유의 전통이 “혐오표현 규제”의 법 제화라는 명분으로 억압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에릭 제무르는 이것을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선진적 인권사상으로 위장한 저항과 혁명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정치적 혼란을 틈타 한국 사회와 법체계에 안착하려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북한 체제의 실상이 드러난 이후 방황하던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바로 이 유럽을 휩쓸고 북미를 변화시킨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를 수입해서 한국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욕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 전 분야에 포진한 소위 좌파(진보)성향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80-9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사회구성체론’과 ‘종속이론’을 대학 내 지하 동아리와 운동권 조직을 통해 학습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력 중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파벌을 NL(민족해방세력)이라고 하고, 레닌주의를 내면화 한 파벌을 PD(계급혁명세력)라고 지칭한다. 한국에서 반미(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또는 신식

민지로 인식)와 적대적 반기업 정서 그리고 유물론적 사유에 기초한 종교에 대한 반감의 사상적 뿌리는 매우 견고하다.

이들은 영국에서 ‘평등법’(한국에서 여러 차례 입법 시도된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법)이 시행된 후 지식인들의 표현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데 성공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공교육체계와 매스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한 후, 유럽의 혁명세력은 “무신론과 유물론은 유럽지성이 승리한 상징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자녀에게 성전환수술을 허락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격리시켜 위탁가정에 보낼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Bill-89)에 대한 논쟁으로 요란하다. 그러나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는 이러한 논쟁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는 “공론의 장”마저 위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법안의 찬성 쪽이 이미 매스미디어와 공교육체계를 장악하고 반대의사 표명을 혐오표현으로 지목해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과 같이 기울어진 공론의 장에서 반대 쪽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젠더이데올로기를 법체계 안에 정착시키려는 세력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2018.09.09 인천퀴어축제 행사장

다음 세대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부모1과 부모2로 호칭 됨)로 상징되는 가정, 즉 사랑의 터전을 빼앗고 생명윤리를 붕괴시키며 음란함을 극대화 하고(음란이 권리가 됨), 인간 정신을 물질의 소산으로 여겨 인류 진보의 상징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역설적으로 약화시키는 인간멸절과 패륜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류사에서 여성은 불합리한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었다. 근대 인권체제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동등한 권리의 향유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과 여’라는 성별의 구별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무성사회’를 추구하는 극단적 이데올로기 또는 남과 여가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급진적 투쟁 등은 “진보”가 아니라 인류를 무질서와 폭력으로 내모는 “퇴보”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기초하여 법치를 발전시키고 이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성숙시킴으로써 ‘남과 여’의 상호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보장되는 ‘정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다.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엘정책연구원(ELI) 원장이다.

